



신년사

친애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희망찬 2003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도민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 한해도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 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우리나라 국운이 널리 퍼지고 도정의 모든 부문에 눈부신 발전이 전개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정치·사회적으로는 화합과 안정을 이루어서 희망찬 한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아울러 대통령선거와 그리고 지방자치 선거도 있었습니다.

21세기를 맞아 첫번째 큰 잔치를 무사히 마치고, 특히 월드컵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화합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올 한해도 영광과 도약의 한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과 함께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모든 도정 현안문제를 폭넓은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 민주주의의의를 확고히 정착시켜 도민들로부터 진정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직장에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1. 1.

경상북도의회회장 최 원 병



주요의정활동

제174회 정례회 (2002. 11. 20 ~ 12. 18)

경상북도의회 제174회 정례회는 2002년 11월 20일 개최하여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회기 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22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11월 20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74회 회기결정의건,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 설명,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하고 휴회하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기중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03년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조례안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12월 2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12월16일 14시에 본회의를 개회해서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2003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의 1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였으며, 12월 18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경북 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한 후 제174회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제175회 임시회 (2002. 12. 20 ~ 12. 27)

경상북도의회 제175회 임시회는 2002년 12월 20일 개최하여 12월 27일까지 8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연 13차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중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12월 20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75회 회기결정의건,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00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을 의결하고 휴회하였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기중 2002년도 경상북도의 제3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례안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청과 교육청의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대한 종합심사를, 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읍진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현지확인,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위원장과 간사 선임등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12월 2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0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 건의·결의안 2건, 동의안 1건, 기타안 4건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2002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75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제174회 정례회

2002. 11. 29(금) 15:00

- 제175회 임시회 회기협의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견 - 의회사무처 소관
- 2003년도 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의회사무처 소관

제175회 임시회

2002. 12. 20(금) 12:20

- 제176회 임시회 회기협의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 2002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 - 의회사무처 소관

2002. 12. 26(목) 12:10

-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기획위원회



제174회 정례회

2002. 12. 03(화) 11:00

- 2003년도경상북도지방채발행동의안
-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지방공사경상북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 12. 04(수) 11:00

-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소관

2002. 12. 05(목) 11:00

-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제175회 임시회

2002. 12. 23(월) 11:00

- 2003년도경상북도제3회추경예산안
- 기획관리실 소관
-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 2003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74회 정례회

2002. 11. 21(목) 17:40

- 경도대학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 참고인 채택

2002. 12. 03(화) 11:00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 2003년도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2002. 12. 04(수) 11:00

-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소관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2002. 12. 05(목) 11:00

-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경도대학,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175회 임시회

2002. 12. 23(금) 11:00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002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경도대학, 자치행정국, 사회복지여성국소관

교육환경위원회



제174회 정례회

2002. 12. 03(화) 11:00

-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 2003년도경상북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포플라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2. 12. 04(수) 11:00

-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사

2002. 12. 05(목) 11:00

-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제175회 임시회

2002. 12. 23(월) 11:00

- 2002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보건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2002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200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경상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농수산위원회



제174회 정례회

2002. 12. 04(수) 11:00

-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심사 - 농수산국 소관
- 2003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2. 12. 05(목) 11:00

-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농업기술원 소관
- 2003년도경상북도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제175회 임시회

2002. 12. 23(월) 11:00

- 2003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농수산국 소관
- 경상북도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 2003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농업기술원 소관

산업관광위원회



제174회 정례회

2002. 12. 04(수) 11:00

-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심사 - 경제통상실 소관
- 2003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2. 12. 05(목) 11:00

- 2003년도경상북도 예산안 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003년도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2003년도경상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안
-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제175회 임시회

2002. 12. 23(월) 11:00

- 2003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경제통상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74회 정례회

2002. 12. 04(수) 11:00

-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건설도시국 소관

2002. 12. 05(목) 11:00

-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소방본부 소관

제175회 임시회

2002. 12. 20(금) 14:40

- 2003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건설도시국 소관
-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설치를 위한 건의안
- 2003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소방본부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4회 정례회

2002. 12. 09(월) 10:00

-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경도대학, 경제통상실소관

2002. 12. 10(화) 10:00

-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자치행정국, 농수산국, 농업기술원소관

2002. 12. 11(수) 10:00

-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보건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사회복지여성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의회사무처 소관

2002. 12. 13(금) 20:00

- 2003년도경상북도예산안 심사
-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사

제175회 임시회

2002. 12. 24(화) 10:10

- 2002년도경상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00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제175회 임시회 2002. 12. 24(화)

• 울진 원자력발전소 방문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제175회 임시회 2002. 12. 27(화) 12:30

- 징계자격특별위원장선임의견 - 위원장 : 양재경 의원
-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견 - 간사 : 황상조 의원



제174회 정례회

도정질문

(2002.12.2)

권 준 택 의원(교육환경위, 철곡)

농촌과 쌀 농사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정서적·경제적 토대이자 뿌리이며 농민과 쌀 농사를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쌀의 감산을 무조건 농민들에게 강요하기 보다는 대체작목의 개발과 농업지원책을 먼저 농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 농가가 농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직불제나 휴경보상제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풍「루사」로 인해서 벼 수확 자체를 아예 포기한 농가들은 봄에 미리 받아 쓴 추곡수매 약정 선급금에다 높은 이율의 위약금을 갚을 길이 막막하여 우리 농민들은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수해를 당한 경북의 많은 농민들은 선급금 상환을 위해 빚을 내어 갚아야 할 사형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농사를 지킬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과 농업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추진해온 증산위주정책을 금년도부터 고품질 적정생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고품질벼 재배 비율을 높이고 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농가 및 RPC에 곡물건조기 등을 공급하여 비가격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위하여 논농업직불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원단가를 두 배로 인상하여 지난해보다 283억원이 증액된 575억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쌀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불안과 쌀생산농가의 소득감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쌀값하락분의 일

정금액을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금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쌀재고량 증가에 따라 쌀의 생산조정을 위하여 휴경한 논에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휴경보상제는 2003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농림부에서 시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로 인하여 추곡 약정수매 포기농가의 선급금 및 위약금 반납에 대하여는 재해로 인하여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 중 약정수매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하여는 선급금 반납을 1년간 연기하고 이자도 면제해 주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재해로 인하여 품위가 떨어지는 벼수매를 위하여 기존 등급 외 잠정등외 미달규격을 신설하여 약정범위 내에서 수매하여 재해·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쌀 적정생산 및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소득안정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북의 농촌실정에 맞는 재가노인 복지시스템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각 분리 운영되고 있는 주민, 복지시설, 행정을 상호 연계하여 삼위일체적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더불어 각 마을마다 있는 마을부녀회를 포함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중심의 권역별 재가복지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경우 한끼의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식사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푸드뱅크(FOOD BANK)의 활성화를 통하여 각 지역의 복지관 및 경로당을 중심으로 집단급식을 하거나 식사배달 서비스를 활성화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독거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예산의 확보문제, 자금의 각출문제,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이중적인 수혜라는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통한 도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단체 혹은 시민 자원봉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질환노인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시켜서 가사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5개소와 가정 내에서 보호가 곤란한 노인을 낮 또는 일정기간 동안 입소시켜 보호하는 주간보호시설 10개소와 또 단기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개소와 주간보호시설 1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를 증설할 계획이며, 특히 이제까지 입소시설과 재가노인 시설이 저소득계층 노인 위주로 공급됨에 따라서 중산 서민층노인의 욕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비주간노인보호소 3개소 시범운영과 실비노인요양시설 3개소 신축으로 부양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과 여성자원활동센터, 사회복지관, 각종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의 분산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는 사이버 자원봉사시스템의 구축으로 상호 연계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을 갖추도록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와 무료로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식당 36개소, 저소득층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독거노인의 위급한 상황 발생시에 119응급센터와 연결하는 자동통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간차원의 봉사활동참여 강화와 시·군 별로 공립주간보호소를 설치하여 농번기에 중풍이나 치매노인을 낮동안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중산 서민층 노인을 위한 입소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의 설치 확대로 저소득층 위주의 소극적인 복지시책에서 탈피하여 소득계층간 시설공급의 형평성 제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국의 광역시·도에서 도민연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원에서 도민연수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도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도민연수교육에 들어가는 예산과 인력을 당면 도정과제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서로 직제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

(2002.12.2)

도민교육의 법적 근거는 경상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경상북도지방공무원운영조례이며 현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타 시·도의 도민교육기구가 대부분 폐지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는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주민교육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기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앞으로 시대적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도민교육의 필요성과 취지를 살려 도민 연수과를 타 직제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도민교육 기능에 대하여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강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현재 엘리트체육 육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이고 도민모두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활체육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생활체육시설과 장소를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도민들로 하여금 보는 체육이 아닌 하는 체육으로 소수정예보다는 다수가 참여하는 생활체육으로 전환함으로써 도민들의 실질적인 건강증진 도모와 복지를 추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요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스포츠활동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 중에 있는 각종 생활체육클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외교의 출발점은 체육이라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우리 경상

북도와 북한과의 생활체육 교류를 추진하여 남북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도에서는 생활체육기반조성을 위하여 공공체육 시설이 부족한 시·군에 수영장을 포함한 서민형 대중 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 4개소를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체육문화활동 공간확보를 위해서 농어촌 문화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을 시·군마다 1개소씩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동 마을단위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 설치와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복지시설에 런닝머신, 안마기, 헬스자전거 등을 설치하는 주민 체력단련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배치확대, 도민들이 선호하는 생활체육교실과 새벽 생활체육광장을 적극 운영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활성화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와 북한의 특정 시·도와의 순수한 생활체육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통일 시대의 활로를 열어 가는 민간차원의 바람직한 행사이기는 하지만 통일부를 비롯한 중앙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1대1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현실적이면서도 비강제적인 방안으로서 인사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인사교류를 승진요건에 포함하고 이동에 따른 적절한 직급을 선정하고 또 교류 후의 경험이 조직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부시장·부군수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당해 시장·군수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해 시장·군수가 특정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어 공무원간 내부갈등이 발생하는 등 도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방직 공무원인 부시장·부군수를 도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시장·군수가 당해 시·군의 공무원을 임명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직 공무원인 부시장·부군수를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도지사의 인사조정권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여 시·군 공무원이 도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도의 5급 승진자는 시·군의 일선 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군에서 일정기간 근무 후 다시 도로 전입시키는 등 보다 활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부단체장 임명관련 사항은 현행법과 제도 하에서 인사조정권을 확립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부단체장 임용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하면서 공동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서 의원(농수산위, 봉화)

제174회 정례회

도정질문

(2002.12.2)

현재 경북도내에는 17개 시외버스 회사가 운행되고 있으나 매년 10억원의 적자로 인해 도민의 혈세로 많은 자금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얼마전 8월초순까지만 하여도 직행버스가 곳곳에 승하차 시켜주어 그나마 불편이 적었으나 지금은 CCTV를 부착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이곳을 지나는 직행버스는 지역주민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농촌지역도 보편적으로 자가용이나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 연세 많으신 노인과 부녀자들은 국도를 걸어서 버스 승강장까지 가다가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뒤따르며, 이는 비단 봉화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내 모든 오지지역의 공통된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시내버스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며, 버스업체에서는 승객이 줄어들어 적자가 누적되므로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무수히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운행중인 대형버스를 소형 미니버스로 지역실정에 맞게 대체 운행하여 업체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차인원이 적은 벽지, 오지 등에는 현 실정에 맞는 버스운행 횟수라든지 시간을 검토를 하고, 또 시내나 농어촌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에는 시외직행버스가 연계되도록 농어촌버스를 증회 운행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승객감소에 따른 대형 시내버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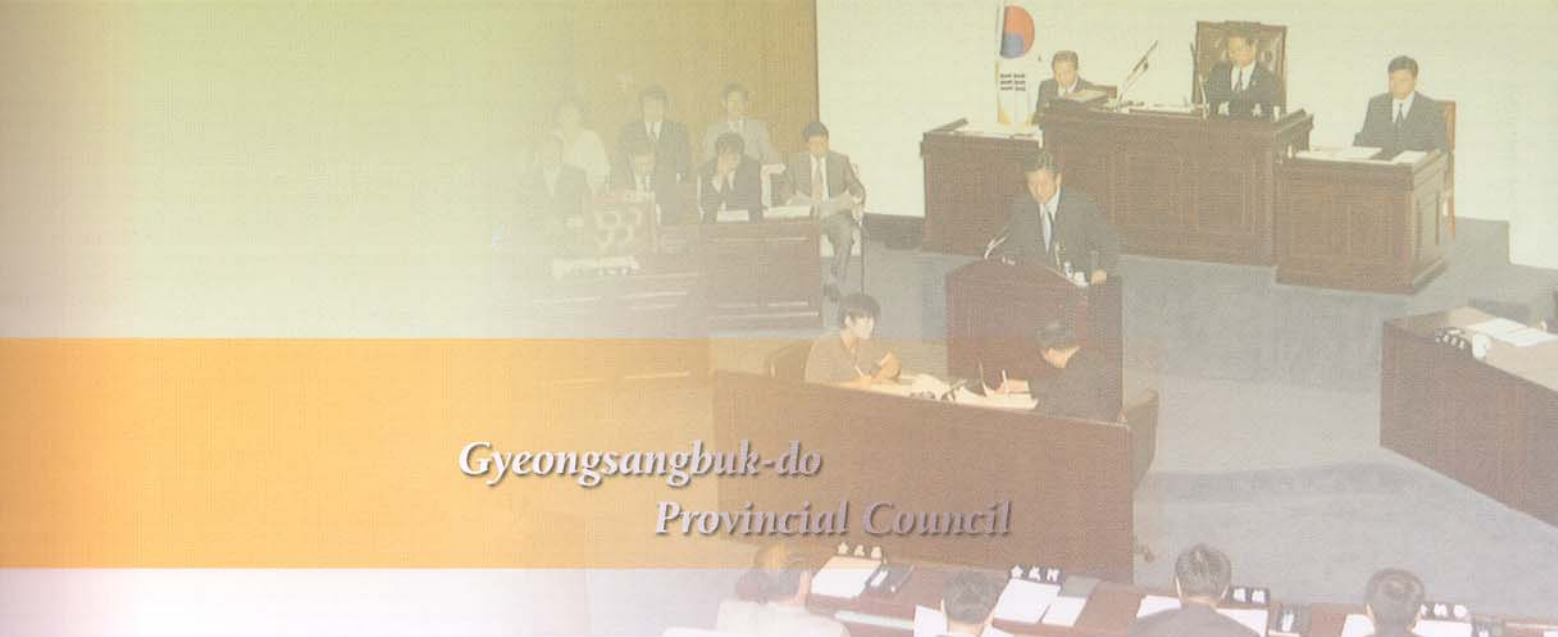
소형 미니버스로의 교체에 대하여는 시·군 관내에 단거리를 운행하는 대형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점차 중·소형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 31번인 봉화 소천에서 태백까지 30km정도 구간과 또 36번 국도 봉화 소천에서 울진 간 2개소의 교통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31번 국도의 소천에서 강원도 경계까지는 봉화군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고, 또 36번 국도 소천에서 울진 간은 봉화군과 울진군이 협의를 해서 현재 왕복 4회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 농어촌버스를 증회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물이 범람한 148개 교량은 앞으로도 상습적인 범람교량이 될 것인데 이와 같은 교량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교량 694개소 중 보수를 하여야 하는 교량은 95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를 시공 연대별로 보면 60년대 10개소, 70년대 36개소, 80년대 35개소, 90년대 이후 14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90년대 이후 시공된 것이 14개소나 된다는 것은 부실공사라든지 설계에서부터 잘못이 있다 하겠습니다. 10년도 되지 않은 교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는 172회 정례회에서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본의원이 제시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항구적인 복구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그 동안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민·관·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재민 구호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및 민생관련시설 응급복구에 전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1조3,000여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와 국회 등에 많은 노력을 함께 한 결과 특별 재해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많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에 곡선부 피해방지를 위하여 제방설계시에 제방 높이를 높이고 하천폭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피해교량 복구에 홍수위 여유고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교각의 설치수를 제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 부설시공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감리와 정기적인 정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과 교량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장기계획에 의한 보수·보강대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위가 닥쳐오는 11월 초순부터 소규모 공사 수천 건이 무더기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수해복구공사는 연말 아니면 내년 3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사를 겨울에 발주하는 것은 정부에서 부실공사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빠른 시일 안에 복구비를 지원받아서 시공하여야 할 사업이 겨울이 되어서 발주 시공하고 있는 모습은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변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공사가 한꺼번에 발주되다가 보면 일선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고 설계,

현장감독, 감리, 준공검사 등 일손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시공 감리는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어서 완벽한 공사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현장을 보면 부실공사는 소규모 업체, 특히 영세업체들로부터 시작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여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은 이장, 지도자, 수해지역 주민들로 한정되어 있어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도 아닌데 과연 올바른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부족한 공사 관리감독을 위하여 퇴직 기술공무원이나 건설 유경험자를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는 대부분 8~9월에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조사라든지 복구계획수립, 또 조사측량설계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또는 12월에 착공하게 됨으로써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절기에는 하천제방 등 기초공사하고 또 기자재 제작 등을 주로 시행하고 구조물공사는 동절기를 피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금년도 수해복구공사는 소규모사업은 연내 완공을 하고 대규모 또는 개량복구사업은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규모와 특수여건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교량 등 대규모사업은 다소 공기가 지연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무리한 시공으로 부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등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2002.12.2)

우리 도에서는 수해복구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한 시·군의 부족한 역량에 대비해서 공사 책임감리와 주민설명회 개최, 또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하는 등 건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새처럼 이동하는 건설업체의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봉화, 김천지역 등 수해지역은 8월부터 우후죽순처럼 건설업체가 생겨났으며 이들 업체들은 공사수주를 위해 수해지역에 너도나도 몰려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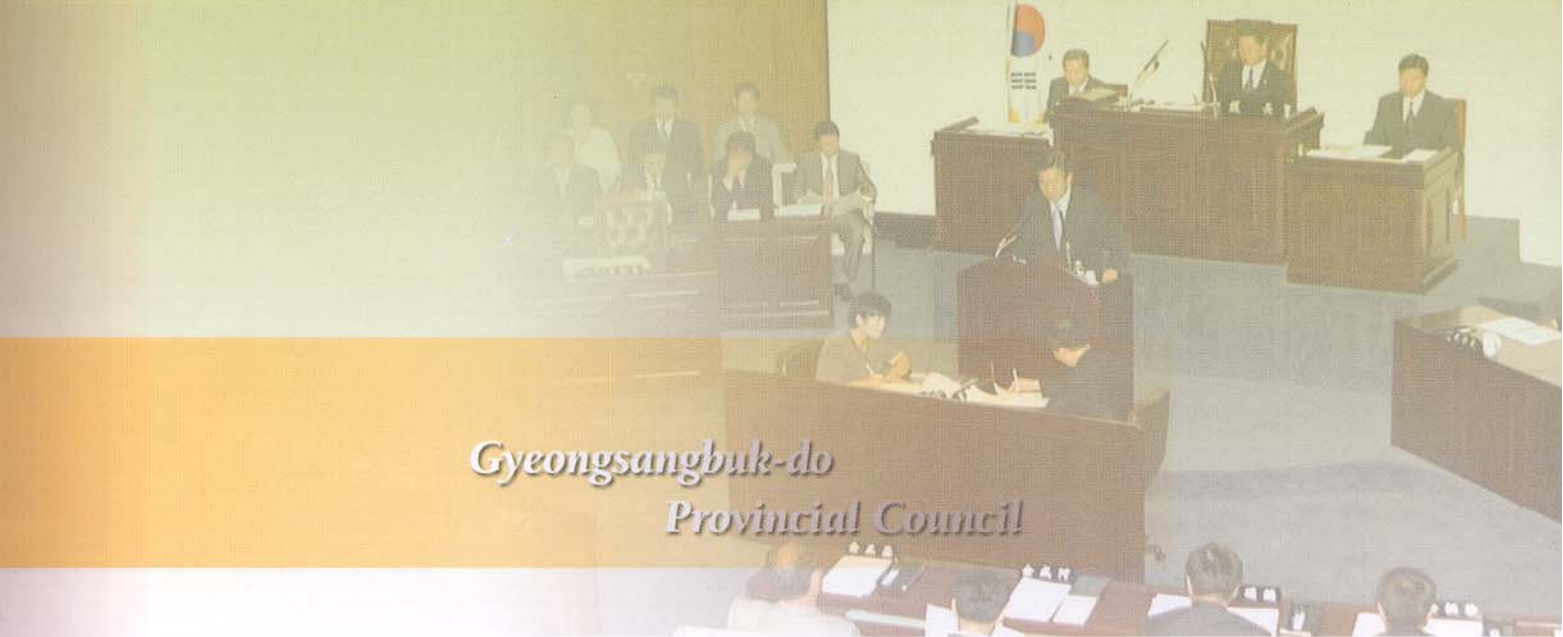
금년 8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불과 두달보름만에 일반 건설업체 소재지 변경상황을 보면 81개 회사 중 김천이 17, 포항이 9, 성주가 8, 영양이 5개소로 나타났으며, 특히 피해가 심한 김천지역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음은 수해지역을 찾아 철새처럼 이동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전문건설업체는 더욱 심한 편인데 이동업체의 신규 또는 주소지 변경을 보면 총 271개사 중 김천이 24, 봉화가 18, 울진이 18, 성주가 1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실공사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업체들은 또 한시적으로 재해지역을 찾아다니며 신설 또는 이전하였다가 공사가 끝나면 자연 폐업 또는 이전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면 공사완공 후, 특히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 또 경험없는 신규업체 난립으로 인한 부실, 공사완공 후 하자발생 시 누구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할 것인가 걱정스러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문건설회사 1개 업체의 연간 관리비가 4~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유명회사들이 과연 오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지, 앞으로 신규업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 건설업체는 총 5,497개 업체입니다. 이중에 일반건설업체는 922개 업체이고 또 전문건설업체는 4,575개 업체가 있습니다. '99년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서 건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에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피해 지역으로 이전한 건설업체와 신규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일부 건설업체들이 수해발생 초기에는 일감을 찾아서 수해지구로 이전한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 법규상에는 이전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공사 준공 후에도 하자보수를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금액의 2~10%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반드시 납부토록 해서 하자발생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체의 난립 및 부실건설업체의 방지를 위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사무실 확보, 기술자 증원 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등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등록 후 3년마다 주기적으로 등록증을 갱신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매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등록기준에 미달된 1,206개 업체에 대하여는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 부실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업계에서 퇴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도내 소하천은 4,030개소, 7,316km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정비가 된 곳은 3,350km로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하천은 수해가 발생하면 하천정비가 되어 있는 곳은 복구가 가능하고 정비가 되지 않은 토사부분은 언제든지 수해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가 되지 않은 토사부분의 하천복구는 항상 토사로 땀질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그 다음해에 조금만 비가 와도 토사유출로 다시 수해를 입게 됩니다.

소규모 수해는 항구복구도 되지 않으며, 가뭄이나 어려운 농민들은 자력으로 복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소하천이라도 수해의 발생시 항구적인 복구가 되게끔 집행기관에서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국·도비 비율을 80%로 증액하여 어려운 농촌경제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많은 개선 노력이 있어야겠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말로만 균형개발을 부르짖지 말고 실제 지역형편에 맞게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균형개발이 되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생각은 없는지? 도지사께서는 북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또 도로사업 등의 국·도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은 각종 건설사업 시행 시에 국·도비 보조가 충분하지 못해서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한 시·군에서는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 건의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도비지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화 등 북부지역 균형개발은 지난 '96년부터 북부지역 11개 시·군에 1,822km²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총 146개 사업 4조2,538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긴축재정 운용,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투자실적이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마는 지난 해 중앙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상주간 개통으로 물류소통이 원활해지고 관광객이 크게 증가되는 등 개발여건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역 개발의 근간이 되는 도로교통망 확충과 하천정비 등 SOC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구미~여주간, 상주~청원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06년까지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고 예천, 영주, 봉화, 울진, 안동, 영주, 영덕, 울진간 국도4차로 확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로사업도 예천~풍양~영순간, 또 부석~도계간 도로를 개설하고 그밖에 시·군도, 농어촌도로사업 등 198개 지구에 5,414억원을 북부지역에 지금 투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174회 정례회

도정질문

(2002.12.2)

황 상 조 의원(건설소방위, 경산)

정부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우리 농산물의 피해액은 연간 450억에서 500억 정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계는 위생 및 검역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연간 4조원 이상의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칠레 무역협정으로 포도, 복숭아, 감귤 등도 치명상을 입을 것이고 사과, 배도 검역이 풀리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예상입니다.

농도인 우리 도에서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도민, 전 농민이 피해당사자가 되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가장 피해를 입게 된 우리 지역의 행정책임자이신 도지사께서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예상되는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보상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해 중앙부처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관련산업의 이익금의 일부를 농업부분의 피해보상을 위한 기금으로 징수하는 방안 등 농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에서는 WTO 도하개발아젠다 출범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대비하여 지난해 7월부터 농정기획단을 설치하여 경북에서 비중이 큰 품목인 쌀, 사과, 포도, 마늘, 고추, 양파, 한우 등 11개 주요품목을 중심으로 세부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며, 중장기 농업발전계획을 전면 보완한 경북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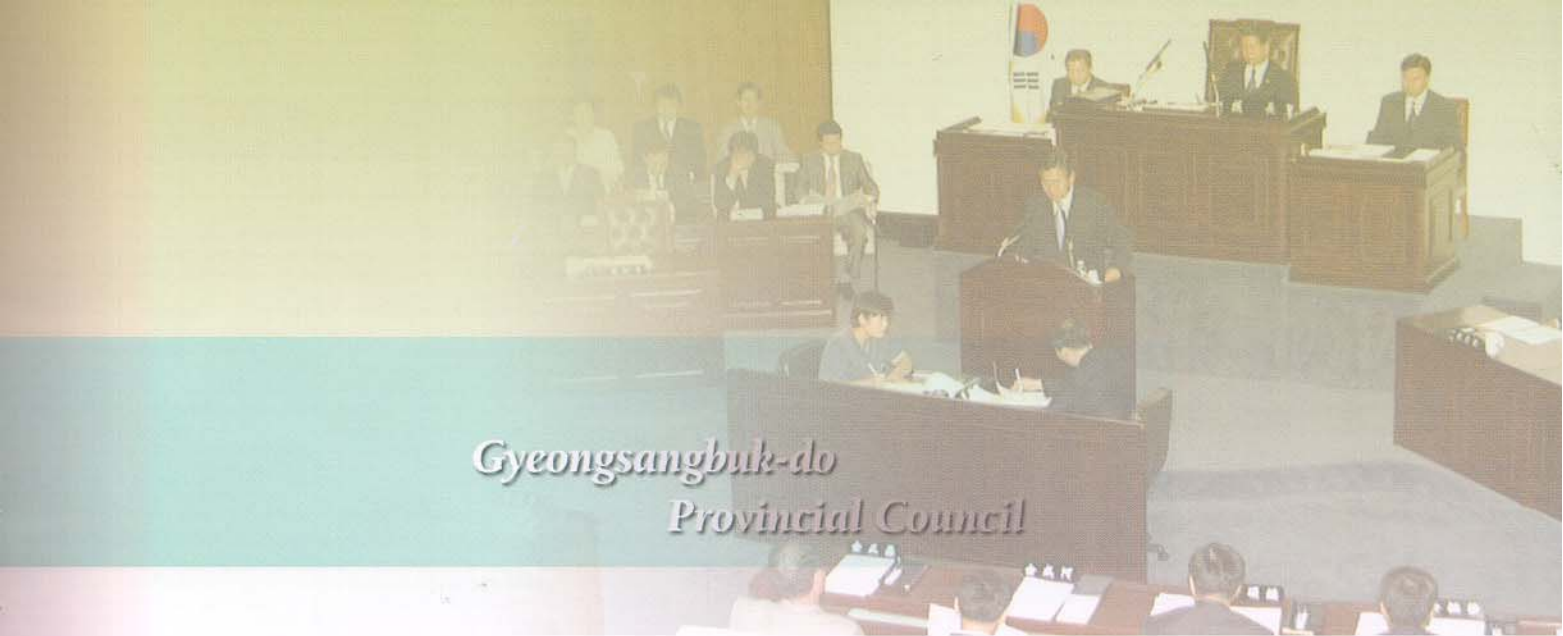
니다. 그리고 농어민의 소득 안전망 조기구축을 위해 재해보험 확대시행과 재해보상법 제정을 중앙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와 농림부에 건의하는 등 지역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기술과 정보, 환경을 활용하여 농어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린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도지사)

경상북도 농가부채 현황을 보면 지난 '98년 농가당 1,796만원에서 2001년 2,151만원으로 20%나 증가하였고 경북지역 쌀 생산량이 9.4%나 감소한 상황에서 부채상환에 있어서 3년에서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농어민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결국 파산하는 농가가 속출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농어민의 위기감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지사께서 도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농어민 부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농어민 부채상환과 관련해 도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도의 호당 농가 부채는 2,151만원으로써 내용별로는 생산성 부채가 67%, 가계성 부채가 24%, 채무상환 및 이자가 9%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1년도에 제정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정책자금 상환연기 등 부채경감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동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내년 1월1일부터는 2001년부터 2003년 기간 중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정책자금인 중장기 정책자금 이율을 3%로 인하하고, 연대보증 피해에 대한 특별자금 이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등 경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농어업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과 별도로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금년 7월1일부터 4%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에서도 자주재원인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시설개선, 수출촉진, 경영안정자금 등에 760억원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자금 금리인하에 부응해서 금리를 종전의 3 내지 5%에서 2.5 내지 4%로 인하하였고, 앞으로도 정부의 금리 변동추이에 따라서 추가인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업인의 부채를 조금이나마 완화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농수산국장)

최근에 대선을 앞두고 경산 및 영천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지하철 경산 연장과 대구선의 복선 전철화 계획이 전환점을 맞고 있어 대구지하철 연장노선을 KDI가 제시한 경전철 대신 중전철로 해야 된다는 것과 대구선 복선 전철화 계획도 모두가 국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동대구~영천구간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난 이상 지금까지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에도 건교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지사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구인근 지역의 도시화와 생활권역의 확대로 경산, 영천, 칠곡 등의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하철의 연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대구지하철 경북 연장을 위해서 '93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당시 1호선은 대구 사북에서 영천까지 연장을 하고 2호선은 대구 사월역에서 하양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도시철도의 건설에 따른 지원 기준인 교통수요의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당해 도시지역 내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 등을 이유로 유보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부산, 대구 등 5대 도시의 지하철 건설운영 부채가 계속 증가되고 정부의 예산사정 등으로 지하철 신규노선 사업은 일정기간 동안 억제하고 민자투자 방식으로 경량전철 사업추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대구지하철 경북지역 연장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에 반영해서 2001년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

도정질문

(2002.12.2)

습니다. 그 결과 당초 신청구간인 대구 사월~하양 보다는 대구 사월~경산~신천까지 추진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방향 등을 설정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영천지역 노선연장은 동대구~영천, 영천~경주 구간으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동대구~영천 구간을 우선 복선전철화와 대구지하철 1호선을 연결하는 광역교통5개년계획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조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건설도시국장)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에 전·답 등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30년 동안 묶여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마저 성립되지 않고 있어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집단취락의 우선 해제와 조정 가능지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되는 취락지에 대한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농어촌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행정편의적인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해 지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보조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지사의 고견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경산시, 고령·칠곡군 등 3개 시군에 117.5km²입니다. 이 가운데 해제대상 면적은 63개소에 6.7km²로써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5.7%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해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구권광역도시계획안은 주민공청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9월6일 경상북도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3년2월 중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일반 조정가능지는 시군별로 개발수요에 따라 필요시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통해서 해제해 나갈 계획이고, 20호이상 우선해제대상 집단취락지는 현재 해당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에 주민공람과 시군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3, 4월경에 도에 신청이 되면 우리도에서는 조속히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10호이상 취락지에 대한 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도에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주택의 신축이 허용됩니다. 도로, 공원,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 설치도 국비에서 70%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건설도시국장)

신상초등학교 전교생 중 95%가 삼주아파트 주민들의 자녀인데 신상초교를 진량산업단지 공단에 건립한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주아파트에서 신상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2km가 넘어 학생들을 승용차로 등·하교시킴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고 승용차로 등교시키지 못한 학부형들은 등·하교의 혜택을 얻기 위해 부득이 사설학원에 보내 학원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신상초교 설립계획을 세우면서 문제는 교육수요 판단인데 신상초교 개교시 아파트 쪽 1,700가구가 이미 입주했고 교육수요는 공단 쪽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쪽 선택은 백년지계를 펼치는 교육계가 탁상행정으로써 지극히 행정편의적 수단이라고 본의원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묻습니다. 신상초교 설립에 관련부지 매입에 있어서 공단 측 부지매입비는 그당시 평당 30여만원 정도이고 아파트 측 학교설립 예정지는 평당 5~10만원 정도로써 훨씬 싼 데도 불구하고 왜 공단 측을 선택했는지 의문스럽고, 신상초등학교 신축 시 65억 정도 공사비가 들었고 그 후 35억원 정도 들어 증축을 했는데 신축 및 증축비가 총 100억원이 든 신상초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삼주 봉황아파트에 초등학교를 설립하자니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신상초교가 학생이 없어 폐교해야 할 입장입니다. 삼주 봉황아파트 입주자의 증가에 따라 초등학교를 따로 건립하자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주 봉황아파트 초등학교유치추진위원회가 경산시, 경상교육청, 도교육청에 봉황초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탄원은 했지만 검토 및 노력만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고 도교육청의 회신내용은 학교설립은 지역교육청의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개교 예정일 2년 전에 최종 결정됨으로 현재 설립계획이 확정된 바 없고 중장기 수용계획상 2006년 이후에 설립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교육감께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초등은 아시다시피 '97년3월1일에 설립을 했습니다만 '93~'94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95년9월 1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진량공단의 단독주택이 1,740세대, 그리고 진량에 삼주 1.2차 아파트가 한 1,672세대로 진량공단쪽에 한 70세대 정도 많은 것으로 그때 그렇게 추정이 되었고 그 당시에 이미 신상 쪽에는 '92년경에 이미 학교 부지 시설결정이 이미 되어서 신상초등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저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든지 삼주아파트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는데, 심지어 제가 삼주 쪽에 학교를 신설할 때까지 스쿨버스를 투입하는 방법, 진량 쪽에 만일 중학교를 하나 더 신설할 필요가 있으면 신상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바꾸고 삼주 쪽에 다시 초등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방법, 아니면 삼주 쪽에 초등을 신설하고 신상초등을 초·중 병설학교로 전환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묘한 해법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아무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신상초등학교를 현재 그대로 두고 삼주 쪽에 신설해 버리면 신상초등학교 그 거대한 건물이 유향화 되면 이것도 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교육감)



제174회 정례회

도정질문

(2002.12.2)

박 성 만 의원(기획위, 영주)

북부권 11개 시·군중에서도 봉화, 영주, 예천은 이번 연말을 기해서 4차선으로 개통이 되고 중심 상권인 영주를 중심으로 5분 상권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3개 시·군의 인구는 합쳐서 약 23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23만명의 인구를 가진 북부 3개 시·군에는 외람되게도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근의 안동에는 종합병원이 하나 있고 문경에 종합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국공립의료기관으로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또 하나는 공립상주적십자병원이 상주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금 북부권 23만 인구는 매년 안동으로 의료비 지출이 수 억대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대구나 서울로 유출되는 환자의 부담이 너무나 크고 있습니다. 환자부담은 둘째 치더라도 환자들 가족부담도 엄청난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간부여러분들에게도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시설 중에서는 아파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의료서비스입니다. 23만명의 인구를 가진 북부권 3개 시·군에 공립공공의료기관을 하나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에게 요구를 드립니다. 의료나 복지는 개발보다는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시급의 타당성을 절실히 느끼신다면 오늘 본의원에게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강력히 요구한 북부권 개발 촉진방안과 관련해서 제시된 공립의료기관 설립문제에 대해서 지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영주, 봉화, 예천은 인구가 23만으로서 종합병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 종합병원이 없는 이 북부 영주, 봉화, 예천 지역에 공립의료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영주, 봉화, 예천 지역의 의료시설 및 소요 병상 수 그리고 현재의 의료 수요, 앞으로의 의료 수요에 대한 전망, 또 현재 우리 도내에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 검토해서 박의원님이 질의한 공공의료기관의 설치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은 무너지고 있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빈사상태에 빠진 지방경제, 허우적거리는 지방대학, 활개치는 난개발, 그리고 험악해진 지역사회의 지역 감정과 지역갈등! 이 모두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는 이 나라 중앙정치권의 위정자들의 책임이라고 돌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규제완화 법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의 국회의원들은 수도권을 규제해야 된다 라고 규제억제법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양진영이 대립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11건이나 됩니다.

이제는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주민을 대신해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될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선택되는 대통령은 아마 이 지방분권 수도권의 폐해에 대해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폐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각인하지 않으면 임기 2년안에 대통령의 하야 운동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사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11년, 민선자치 7년, 이외근 지사님께서서는 민선 3선 지사로서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16개 광역 시·도지사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서 모범이 되어야 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남은 재임기간에 3선 민선지사로써 실패한 지사로 남기보다는 성공한 지사로 남기 위해서는 마지막 주민자치 11년의 풀뿌리민주주의 반석을 쌓는 그 중심에 설 용의가 있느냐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당당히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근 지사님께서 앞장을 서신다면 우리 57명의 광역의원들도 지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지방민들의 심적인 분노와 갈등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유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중앙정부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서 필요로 했을 때만이 우리에게 위임을 하지 절대로 위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기다린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이 자리에서 주장합니다. 우리 광역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하나된 목소리로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를 향해서 지방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자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방은 피폐해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은 진공 청소기, 거대한 공룡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정부를 향한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니라 돈바라기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국세와 지방세의 8대2의 비율이라 하지만 이제는 자치입법권, 행정권, 조직권, 재정권을 서서히 이전하지 않으면 지방자치 11년이 아니라 앞으로 될 지방자치의 미래와 발전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가 일천하고 자치여건과 제도 또 지방자치의 의식의 미흡 등 아직도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방사무는 전체 사무의 27%로 지방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취약하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8대2이고 재정자립도는 우리 도의 경우 28.7%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서 국토 1할에 해당되는 수도권에 인구의 47%, 공공기관의 75%, 100대 기업 본사 8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과밀화에 따른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지방은 계속되는 경제계의 이탈과 인재 유출로 지역경제는 활력을 얻지 못하고 지역사회는 날로 정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축된 지방자치의 정착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방분권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중앙의 권한과 재정은 과감하게 이양되어야 하고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부처와 대기업의 지방이전 특별행정기관의 자치단체 이관, 지역인재와 지방대학의 육성 등이 현실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도정질문

(2002.12.2)

본인도 지방자치단체의 한 책임자로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 결과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 '99년8월부터 2년동안 대통령 직속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제가 시·도지사를 대표해서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그 결과는 미약합니다. 도지사 혼자 아무리 주장해도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 한 1년, 후반기에는 거의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통하여 2000년5월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해서 실천할 것을 촉구했고, 지난 10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제가 회장으로 선임된 것을 계기로 해서 지방분권의 시급한 현안과제로 지방 특별 관서의 자치단체 이관, 중앙부처 대기업의 본사 지방이전, 실질적인 권한으로 지역책임성의 확보, 지방재정확충, 지방대학 육성 및 인재 할당제 도입 등 5개 사항을 선정해서 영·호남 지역 8개 시도지사가 연명으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2001년 10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치단체 이관을 우리도가 제안을 해서 공동 과제로 채택을 하고 현재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고 이러한 연구는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학회,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정감사 제도의 개선, 지방정치인의 후원회 허용, 지방정치인의 공

천제도의 개선, 지방정치인의 사직 규정의 완화 등 지방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본 시·도지사협의 회에서 그동안 많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경북과 대구 지역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방분권 국민운동 등 NGO단체의 활동에도 관심을 갖는 등 지역주민, 언론계 등 지역의 각계각층의 여론형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개최된 한·일시도지사 회의를 통하여 양국의 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일본이 추진중인 지방분권 정책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최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분권일괄법을 작년부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유사한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을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쟁취를 위해서는 지역 전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이 결집되고 지방간의 연대를 통한 공동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상징인 지방의회의 협력과 지지가 중요함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하에 지방분권운동에 앞장설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공천제도의 개선, 지방정치인의 사직 규정의 완화 등 지방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본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도의회 신년인사회

News

Gyeongsanbuk-do Provincial Council



◀경상북도의회 송년회



▲2003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경북대중 제야의 타종



◀신년인사(영덕삼사해상공원)



▲중앙지원예산 형평성 촉구 성명서 발표



▲12.19 보궐선거 당선자 의원선서(권종연, 장미향 의원)

News

Gyeongsanbuk-do Provincial Council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축하 및 시민주 청약



▲한국전력 경북지사 신축사옥준공



◀희망2003 이웃돕기캠페인



▲경북 경찰청 전·의경 위문



◀복지시설위문(안동재활원)

News

Gyeongsanbuk-do Provincial Council

영천소재 나자렛집 위문 ▶



▲영주 다미안의 집 위문



◀포항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위문

참신한 의회상 정립



장계자격특별위원장
양재경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장계자격특별위원장 양재경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장계자격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0만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으며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중
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배양하고 예절을 중시함으로
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한 절차와 관습을 준수함으로서 지방의회가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민
의의 전당”이 되도록 노력하고, 의원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
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나아가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
회의 발전은 물론 참신한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전 도의원이 뜻을 같
이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계자격특별위원회



梁在環 위원장
청도군2, 한나라



黃相祚 간사
경산시2, 한나라



權璟浩 위원
영양군2, 한나라



金基大 위원
성주군2, 한나라



金碩鎬 위원
구미시3, 한나라



金靖子 위원
비례대표, 민주



金俊鎬 위원
영천시1, 한나라



羅鍾澤 위원
고령군2, 한나라



方有鳳 위원
울진군2, 한나라



孫奎三 위원
포항시1, 한나라



鄭補鎬 위원
구미시2, 한나라

의장단



최 원 병 의장(경주)

- 2002.12. 4 KBS 대구방송총국 신사육 준공식 참석
- 2002.12. 9 도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 대구시민 프로 축구단 시민주 청약회의 참석
- 2002.12.21 도청강당에서 개최한 경상북도 문화상 시상식 참석
- 2002.12.23 도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 문화엑스포 이사회 참석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02년도 상공인 송년회 참석
- 2002.12.26 도청강당에서 개최한 경북 중소기업상 시상식 참석,축사
- 2002.12.31 영덕삼사해상공원에서 열린 경북대종 제야의타 종행사 참석
- 2003. 1. 2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매일신문사 주최 2003년도 신년교례회 참석
- 2003. 1. 7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여성신년교례회 참석,축사
- 2003. 1.22 경주교도소,경주경찰서방법순찰대,모자시설 애가원 위문
- 2003. 1.23 도청강당에서 개최한 산업평화대상 시상식 참석,축사
- 2003. 1.24 도 지방경찰청 전경대 위문
의회사무처 직장협의회 창립총회 참석,축사
- 2003. 1.25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경북지역신문협회 신년인사회 참석
- 2003. 1.27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수위 전국순회 토론회 참석



김 선 중 부의장(안동)

- 2002.12. 9 안동 용상새마을금고에서 열린 제9회 안동장수 노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
- 2002.12.10 안동시 임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하댐 수질관리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임하댐 수질 악화로 인한 현안사항을 협의
- 2002.12.23 안동시 정화동 한국전력공사 경북지사 2층 강당에서 개최된 사목준공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
- 2002.12.26 의성문화회관에서 열린『제11회 경상북도자활 자립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축하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
- 2003. 1.22 안동농협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2회 안동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
- 2003. 1.28 우리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시설인 안동재활원, 안동요양원, 안동단비원과 안동교도소, 안동 방법순찰대 등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정 무 응 부의장(울릉)

- 2002.11.30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83회 전국체 전 해단식에 참석하여 참가선수 및 관계자들을 격려
- 2002.12.24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02바르게살 기운동경북대회』에 참석하여 축하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
- 2003. 1.23 우리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울릉경비 대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의회운영위원회



손 규 삼 위원장(포항)

- 2002.12.27 포항 북구 흥해읍 이장협의회 참석
주민현안사항 청취
- 2003. 1.14~15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참석
(인천)
비회기중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지급 및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확대, 의회사무
처 인력보강 등 현안사항 토의
- 2003. 1.28 사회복지시설 포항시 선린애육원 방문,
위문품 전달



방 유 봉 간사(울진)

- 2002.12. 8 온정면 덕산3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2.12.12 후포 청년회관에서 개최된 JC회장단 이취임
식에 참석
- 2002.12.21 평해초등학교에서 개최된 평해읍 기관단체
임직원 체육대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2002.12.31 서면 불영사에서 개최된 제야의종 타종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주민들과 환담
- 2003. 1. 1 후포면 등기산 해맞이축제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원남면 회의실에서 개최된 원남면신년
교례회에 참석 축하
- 2003. 1. 3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울진군신년
교례회에 참석
- 2003. 1. 4 온정면 및 기성면 회의실에서 개최된 신년
교례회 및 JC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축하를
하고 관계자 격려
- 2003. 1.19 울진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매립지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결성식 참석

기획위원회



박 성 만 위원장(영주)

- 2002.11.21 지방공사 도립 포항의료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자 격려
- 2002.12. 2 경상북도의회 제174회 정례회에서 지역균형 개발과 지방분권 및 북부지역 도립 한방병원 설립 등에 관하여 도정질문
- 2002.12.17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대통령선거 투표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관들을 격려
- 2002.12.21 장수면 수해지역 및 북구현장을 방문 관계자 격려
- 2002.12.22 영주 부석사에서 동짓날 법회에 참석 불자들과 환담
- 2002.12.28 평은, 문수, 장수면 지역 노인회관 및 불우시설 위문
- 2003. 1. 7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2003 경북여성 신년교례회 참석
- 2003. 1. 8 도청강당에서 개최된 도의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 2003. 1.27 영주 관내 설날맞이 불우시설 위문



장 하 숙 간사(비례)

- 2002.11.21 지방공사 도립 포항의료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자 격려
- 2002.12.24 영주 제일교회 성탄일 맞이 조찬기도회 참석, 성도들과 환담하고 지역 여론 청취
- 2002.12.29 풍기읍 노인회관 및 청소년 공부방 방문 위문품 전달
- 2003. 1. 4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전국 여성지도자 협의회에 참석 회장으로서는 총회주재
- 2003. 1. 9 풍기읍 부녀의용소방대 대장 이취임식 참석 축하를 하고 관내 독거노인 자택방문 위문품 전달
- 2003. 1.13 영주 소백호텔에서 개최된 철쭉라이온스 총회에 참석 축하
- 2003. 1.15 안동 파크호텔에서 경상북도 여성문학제2집 발간 출판기념회 개최
- 2003. 1.25 상주 고려예식장에서 한국문인협회 경북지회 장으로서 문학인의 밤 행사 개최

의원동정



권 경 호 의원(영양)

- 2002.12.28 영양군청을 방문 수해복구관련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한 후 입암면 노인회관을 방문 위문품 전달
- 2003. 1. 2 영양군청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영양JC 신년교례회에 참석
- 2003. 1. 7 석보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2003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장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주민들과 환담
- 2003. 1. 8 도청강당에서 개최된 도의회 신년교례회 참석
- 2003. 1.13 입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암애향청년회 정기총회에 참석 축하
- 2003. 1.14 입암면회의실에서 개최된 2003년도 새마을지도자 총회 및 입암면 농업경영인 총회에 각각 참석 축사를 하고 관계자 격려
- 2003. 1.22 영양군 재향군인회관에서 개최된 2003년도 영양 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 참석
- 2003. 1.29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03 영양군 남녀 새마을지도자 총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관내 독거노인 및 불우 청소년을 방문 위문품 전달



박 경 동 간사(울릉)

- 2002.11.21 지방공사 도립 포항의료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관계자 격려
- 2002.12.31 영덕 삼사해상공원에서 실시한 송년의밤 행사 및 제야의종 타종식에 참석
- 2003. 1. 7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2003 경북여성신년교례회 참석
- 2003. 1. 8 도청강당에서 개최된 도의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 2003. 1.28 울릉읍 지역내 독거노인 자택방문 위문품 전달 및 노인회관 방문 격려



박 두 필 의원(비례)

- 2002.12.22 상주 법주사에서 개최된 동지법회에 참석 불자들과 환담
- 2002.12.24 관내 소년소녀가장 자택방문 격려
- 2002.12.29 상주 적십자병원 방문 노인성질환 입원환자 위로
- 2003. 1. 8 도청강당에서 개최된 도의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 2003. 1.13 청평 수련원에서 개최된 세계평화대사회익에 참석
- 2003. 1.15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신년교례회에 참석
- 2003. 1.18 화동면 정재수 기념관 방문 관계자 격려



장 미 향 의원(상주)

- 2002.12.20 제7대 도의회 등원 제175회 임시회에 참석 도의원 당선자 선서 및 집행부 관계관 접견 환담
- 2002.12.31 상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송년행사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제야의종 타종식 참석
- 2003. 1. 2 상주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신년교례회에 참석
- 2003. 1. 7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2003년도 경북 여성 신년교례회에 참석
- 2003. 1.15 경북전문대학에서 열린 한국전통문화컨텐츠 센터 개소식 참석,관계자 격려
- 2003. 1.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조정위원 위촉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환담
- 2003. 1.20 한국 걸스카우트 경북연맹 회의실에서 경북연맹 월례회의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축하
- 2003. 1.21 상주시 여성농업인 회관에서 개최된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감사패 수여
- 2003. 2. 6 도의회 기획위원회에 참석 상임위원회 소관의 도정에 관한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회위원회



김 희 문 위원장(봉화)

- 2002.12.10 봉화JC회관에서 열린 JC회장단 이 취임식 참석, 격려
- 2002.12.14 봉화군민회관에서 열린 불우이웃돕기디너쇼 참석
- 2002.12.16 농업경영인 사무실에서 열린 여성농업경영인 총회 참석, 격려
- 2002.12.26 봉화 승부역에서 열린 눈꽃열차 20만명 방문 축하 기념행사 참석
- 2002.12.27 봉화복지회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 총회 참석, 격려
- 2003. 1.16 경상북도 농업경영인 회관에서 열린 박노옥 道 농업경영인회장(봉화군 출신) 취임식 축하(화환)
- 2003. 1.22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평화통일자문회의 참석
- 2003. 1.28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바르게살기협의회 총회 참석, 회장에 피선



이 현 준 간사(예천)

- 2002.11.20 감천면 덕을 추곡수매장 방문, 관계자 격려 및 환담
- 2002.12. 9 용문면 대제리 추곡수매장 방문, 관계자 격려 및 환담
- 2002.12.14 예천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및 신·구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회원 격려
- 2003. 1. 4 2003년도 용문면 신년교례회 참석, 격려사
- 2003. 1. 9 환경농업 관련 영농교육장 방문, 교육생 격려
- 2003. 1.17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주관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촉진을 위한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
- 2003. 1.18 용궁면 월오리 경로당에서 열린 경상북도 최우수 모범 경로당 시상식 참석, 관계자 및 주민 치하



김 정 자 의원(비례)

- 2002.12. 9 울진군 체육관에서 열린 『울진군 JC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축하
- 2002.12.30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송년의 밤 및 송년음악회』 참석, 격려
- 2002.12.31 천축산 불영사에서 개최된 재야타종식 참석, 타종후 환담
- 2003. 1. 3 울진군 체육관에서 열린 『2003년 신년인사와 향토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행사 참석, 격려
- 2003. 1. 7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2003년도 경상북도 여성지도자 신년교례회』참석, 격려
- 2003. 1. 9 울진군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울진원전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 결성식』참석
- 2003. 1.23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경상북도 공익사업선정 위원회』참석
- 2003. 1.27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노무현 대통령당선자 대구 경북 현장보고회』참석, 만찬
- 2003. 1.28 울진 방사성 핵폐기물처리장 설치 계획 철회요구 및 주민 반대서명부 전달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산업자원부 항의 방문 집회에 참석



나 종 택 의원(고령)

- 2002.11.22 대가야국악당에서 열린 『고령육미』출시기념 및 시식행사 참석, 격려
- 2002.12.21~27 개진면 오사1리, 인안2리, 개포1리 마을회관 준공식 참석, 축하
- 2002.12.27 다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다산면 방위협의회 참석, 격려
- 2003. 1. 7 개진면 개포1리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군연합회 정기총회 참석, 격려
- 2003. 1. 8 농업경영인회관에서 열린 군 4-H연합회 연시총회 참석, 격려
- 2003. 1.14 다산면 회의실에서 열린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 격려
- 2003. 1.20 농업경영인회관에서 열린 농업경영인고령군연합회 신 구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격려
- 2003. 1.21~22 개진, 우곡면회의실에서 열린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 격려
- 2003. 1.28 군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조성 사업설명회 참석



의원동정



손 만 덕 의원(군위)

- 2002.12.20 군위군 로타리클럽 9주년 창립행사 참석, 축하
- 2002.12.21 군위JC 25주년 기념행사 및 신 구회장단이 취임식 참석, 격려
- 2003. 1. 3 군위JC주최 신년교례회 참석
- 2003. 1. 6 군위군 여성단체신년교례회 참석, 격려
- 2003. 1.14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팔레스타인 아라파트 행정수반 경상북도 방문 행사, 참석
- 2003. 1.15 군위여성대학 개강식 참석, 축하
- 2003. 1.21 군위읍 동부2리 노인회관에서 열린 경상북도 우수노인회관 시상식 참석, 축하
- 2003. 1.24 군위군 재향군인회 44차 정기총회 참석, 축하



황 복 희 의원(비례)

- 2002.12. 8 포항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개점 2주년 기념 행사 참석, 축하
- 2002.12.11 포항지역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발전 협의회 참석(동 협의회 이사자격)
- 2002.12.23 칠곡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경북새마을합창경연 대회 참석, 격려
- 2002.12.24 도의회 자치발전특위 활동의 일환으로 울진원 자력 발전소를 방문
- 2002.12.27 김천과학대학에서 열린 道새마을평가대회 참석, 격려
- 2003. 1. 6 대왕예식장에서 열린 포항시 여성단체 신년 교례회를 주관(여성단체협의회장)
- 2003. 1. 7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경상북도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참석, 격려

교육환경위원회



권 준 택 의원(칠곡)

- 2002.11.26 여성대학수료식 참석 수료생 격려
- 2002.12.13 성베네딕도 수도원 설립 50주년 기념 외국인근로자돕기 바자회 참석 격려
- 2003. 1.11 바르게살기칠곡군협의회 총회 참석 격려
- 2003. 1.17 가산면 송학1리 경로당 준공식 참석 주민 격려
- 2003. 1.24 농업경영인 연합회 창립 6주년 및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격려



김 응 규 의원(김천)

- 2002.12. 7 한국연예협회김천지부 제2회 정기연주회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2.11 김천서부초등학교베드민턴합숙소 준공식 참석, 관계자 격려
- 2002.12.21 김천시해병전우회 송년의 밤 행사 참석
- 2002.12.27 김천청년회의소(현,특우회)회장단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참석
- 2003. 1.22 재향군인회 정기총회 참석, 격려



박 승 학 의원(청송)

- 2003. 1. 7 현서면 모계1리 경노당 준공식 참석
- 2003. 1.10 청송군 농업경영인 2003년 정기총회 참석
- 2003. 1.15~24 새해 영농교육 참석 및 격려
- 2003. 1.23 한국임업후계자협회경북도지회 정기총회 참석
- 2003. 1.24 생활폐기물처리장 선정에 따른 대책회의 참석
- 2003. 1.28 청송단위농협 2003년 대의원총회 참석



의원동정



박 종 욱 의원(청송)

- 2002.12.23 청송군농업인회관 준공식 참석, 축사
- 2002.12.30 청송읍 청운리에서 열린 장애인연합회 정기총회 참석, 장애인 지원약속
- 2002.12.31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 수여
- 2003. 1.18 청송군농민회진보지회 결성식 참석, 축사
- 2003. 1.28 진보농협 대의원대회 참석, 축사
경비교도대방문 위문품전달 및 격려

농수산위원회



방 대 선 위원장(성주)

- 2002.11.20 전업농 도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 2002.12. 4 농업기반공사경북본부 초청 간담회
- 2002.12. 5 경북대농업개발대학원 초청 간담회
- 2002.12.17 경북대농업개발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 특별세미나 참석
- 2002.12.27 성주군농업기술센터 청사준공식 참석,축사
- 2002.12.28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양봉협회경북지회 제25차 정기총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2003. 1.16 농업경영인연합회 도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축사
- 2003. 1. 사회복지시설 위문



정 상 진 간사(예천)

- 2002.11.20 전업농 도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 2002.12. 4 농업기반공사경북본부 초청 간담회
- 2002.12. 5 경북대농업개발대학원 초청 간담회
- 2003. 1.24 예천군 용궁면 무지리 장애인시설 "사랑마을" 위문



강 영 서 의원(봉화)

- 2002.11.20 전업농 도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 2002.12. 4 농업기반공사경북본부 초청 간담회
- 2002.12. 5 경북대농업개발대학원 초청 간담회



김 정 기 의원(김천)

- 2002.11.20 전업농 도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 2002.12. 4 농업기반공사경북본부 초청 간담회
- 2002.12. 5 경북대농업개발대학원 초청 간담회
- 2003. 1. 사회복지시설 및 315전경대 위문



김 주 연 의원(칠곡)

- 2002.11.20 전업농 도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 2002.12. 4 농업기반공사경북본부 초청 간담회
- 2002.12. 5 경북대농업개발대학원 초청 간담회
- 2003. 1.16 농업경영인연합회 도연합회장 이 · 취임식 참석

의원동정



이 상 효 의원(경주)

- 2002.11.20 전업농 도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 2002.12. 4 농업기반공사경북본부 초청 간담회
- 2002.12. 5 경북대농업개발대학원 초청 간담회
- 2002.12.27 영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경북민속장기대회 주재 및 관계자 격려
- 2003. 1.10 경주시 시정설명회 및 간담회 참석
- 2003. 1. 사회복지시설 및 경주교도소 위문



이 용 석 의원(구미)

- 2002.11.20 전업농 도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 2002.12. 4 농업기반공사경북본부 초청 간담회
- 2002.12. 5 경북대농업개발대학원 초청 간담회
- 2003. 1. 사회복지시설 및 방법순찰대 위문



이 정 백 의원(상주)

- 2002.11.20 전업농 도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상주시 외서면 환경농업학교에서 개최한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장을 방문, 농민 격려
- 2002.12. 4 농업기반공사경북본부 초청 간담회
- 2002.12. 5 경북대농업개발대학원 초청 간담회
- 2002.12.12 상주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냉림사회복지관 개관 6주년 기념행사 참석
- 2003. 1.16 농업경영인연합회 도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산업관광위원회



김 석 호 간사(구미)

- 2002.12.11 국민생활체육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수여



김 병 진 의원(문경)

- 2002.11.29 문경시 장애인후원회장으로서 연탄 5,500장을 관내 지체장애인 및 장애인복지관에 전달, 위로



정 일 영 의원(울진)

- 2002.12.30 울진군 송년 음악회 참석하여 울진군 기관단체 관계관 격려
- 2003. 1. 3 울진군 청년회의소 주관 2003년도 신년 교례회 참석하여 인사 및 향토발전을 위한 대화
- 2003. 1. 9 울진JC 신구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관계관 격려
- 2003. 1.24 울진군 행정동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대회사 및 관계관 격려
- 2003. 1.27 울진군 동심회 정기총회에 참석 대회사 및 관계관 격려



의원동정



한 혜 련 의원(비례)

- 2002.11.23 2002년 여성대회 및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 격려
- 2002.11.30 제83회 전국체전 경상북도 선수단 해단식 참석
- 2002.12.11 영천 영대병원 사랑병동개설 기념식 참석
- 2002.12.21 영천시 시장배 수영대회 참석, 격려
- 2002.12.23 제11회 경상북도 한마음 합창경연대회 참석
- 2002.12.24 2003년 경상북도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참석
- 2002.12.26 영천시 청년 연합회 이.취임식 참석, 격려
- 2002.12.27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참석
- 2003. 1. 3 영천시 문화원 신년교례회 참석
- 2003. 1.21 영천시 여성단체 신년인사회 참석, 격려
- 2003. 1.24 제5회 성덕대학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참석
- 2003. 1.28 영천시 나자렛집, 전경대 위문
- 2003. 1.29 영천시 농업경영인 이.취임식 참석, 격려

건설소방위원회



이 달 위원장(경주)

- 2002.11.20~30 행정사무감사(건설도시국, 소방본부)
- 2002.12.12 경주시 체육부문 문화상 수상
- 2002.12.28~3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위문
- 2003.1.27~28 불우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로 및 격려



황 상 조 간사(경산)

- 2002.11.20~30 행정사무감사(건설도시국, 소방본부)
- 2002.12.28~3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위문
- 2003.1.27~28 불우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로 및 격려



권 중 연 의원(안동)

- 2003.1.27~28 안동시 풍천, 풍산, 일직, 남후면 2003년 영·농 교육 참석, 주민애로사항 및 민원 수렴
- 2003. 1.29 안동경찰서, 안동교도소 근무 전경대 및 단비원 방문, 격려



김 기 대 의원(성주)

- 2002.11.20~30 행정사무감사(건설도시국, 소방본부)
- 2002.12.28~3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위문
- 2003. 1. 읍면동 영농교육 참석 격려
- 2003.1.27~28 불우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로 및 격려



의원동정



박영화 의원(고령)

- 2002.11.20~30 행정사무감사(건설도시국, 소방본부)
- 2002.12.28~3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위문
- 2003. 1. 읍면동 영농교육 참석 격려
- 2003.1.27~28 불우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로 및 격려



윤경희 의원(비례)

- 2002.11.20~30 행정사무감사(건설도시국, 소방본부)
- 2002.11.23 청송 진보재래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 2002.12.28~3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위문
- 2003. 1 읍면동 영농교육 참석 격려
- 2003. 1.27~28 불우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로 및 격려



이종철 의원(영천)

- 2002.11.20~30 행정사무감사(건설도시국, 소방본부)
- 2002.12.28~3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위문
- 2003. 1 읍면동 영농교육 참석 격려
- 2003. 1.27~28 불우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로 및 격려



이 호 근 의원(영양)

- 2002.11.20~30 행정사무감사(건설도시국, 소방본부)
- 2002.12.28~3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위문
- 2003. 1 읍면동 영농교육 참석 격려
- 2003. 1.27~28 불우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로 및 격려



장 욱 의원(군위)

- 2002.11.20~30 행정사무감사(건설도시국, 소방본부)
- 2002.12.28~3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위문
- 2003. 1 읍면동 영농교육 참석 격려
- 2003. 1.27~28 불우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로 및 격려



채 희 영 의원(문경)

- 2002.11.20~30 행정사무감사(건설도시국, 소방본부)
- 2003. 1. 8 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 참석
- 2003. 1. 7~21 읍면동 영농교육 참석 격려
생활개선회 교육참석 격려
- 2003. 1. 20 한센환자촌 상신원 방문 격려
- 2003. 1.27~28 불우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위로 및 격려



의원동정



장 대 진 위원장(안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2.11.30 안동길원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졸업생350명을 대상으로 향후 진로문제에 대해 특강을 실시
- 2003. 1. 3 안동시 체육관에서 안동상공회의소 주최 신년 교례회에 참석하여 지역상공인 및 시민들과 신년 인사회를 가짐
- 2003. 1. 8 도청강당에서 경상북도의회 주최 신년교례회에 참석
- 2003. 1.13 안동시 와룡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용소방대 총회 및 와룡면 태1리 상수도 설명회에 참석하여 지역민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 2003. 1.14, 1.15, 1.20, 1.22 안동시 서후면,북후면,강남동,녹전면 원천리, 북후면 신전리,연곡리,도산면사무소 및 삼계리 마을회관에서 실시한 새해 영농설계교육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격려 및 지역농민들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위로격려
- 2003. 1.16 안동 로타리클럽 임원진들과 상견회를 갖고 클럽 운영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 2003. 1.17 경안고등학교 총동창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년 인사회를 갖고 학교 교육시책에 대해 논의
- 2003. 1.21 서후면 기관단체장 및 종합건설사업소 안동지 소장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교통사고 다발지역 인 서후 만운교 보강문제에 대해 현장설명회를 개최
- 2003. 1.22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안보궐기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
- 2003. 1.23 안동서부교회에서 대구·경북본부주최 불우 이웃돕기 사랑의 쌀 전달식 행사에 참석
- 2003. 1.28 설날을 맞이하여 관내 안동경찰서 방법순찰대, 안동교도소 및 안동재활원,요양원,단비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라면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
- 2003. 1.29 서후면 복지회관에서 열린 서후 농협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축사 및 관계자들을 격려

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정 보 호 위원장(구미)

- 2002.11.22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씨름대회에 참석하여 선수 및 관계자들을 격려
- 2002.12.13 구미교육청에서 열린 구미 교육성과 보고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
- 2002.12.23 구미시중소기업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
구미시민회관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송년 행사에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 2002.12.24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들과 울진 원전을 방문하여 현황청취 및 안정성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
- 2003. 1. 2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구미시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에 참석
- 2003. 1.18 구미시 농업경영인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축사 및 관계자들과 농정시책에 간담회를 갖고 격려
- 2003. 1.28 설날을 맞이하여 구미경찰서 전경대 및 구미 삼성원(고아원)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양 재 경 위원장(청도)

- 2002.11.20 전업농 도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
- 2002.12. 4 농업기반공사경북본부 초청 간담회
- 2002.12. 5 경북대농업개발대학원 초청 간담회
- 2002.12.24 울진 원자력발전소 현지확인
- 2003. 1.16 농업경영인연합회 도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